

사람 · 생태 · 문화에서 패러다임 전환

팔복예술공장 등 중심으로 한
문화재생, 도시재생의 '정석'
천만그루 정원도시 프로젝트 전개
전라감영 복원 통해 정체성 회복
야호, 아동친화 대표 브랜드 선정
광역시에 준하는 '특레시' 지정 준비

민선6기 이후 전주시는 생물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자연생태계를 회복하고, 길게는 역사 짧게는 기억이나 흔적을 복원하여 전주의 문화와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했다. 또한 사람과 사람이 있는 공동체를 복원하고 아동·청년 정책을 추진하며 사람중심 인간성 회복도 추구했다. 아울러 자립도시 전주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며 미래도시 전주의 회복력도 준비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사람·생태·문화 등 전환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며 도시 회복력을 높였고 올 한해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전주를 더욱 전주답게 만들었다.

▲높이진 문화·생태·역사분야 회복력, 경제를 끌다
전주시가 추진해온 도시의 회복력 강화 사업은 문화·생태·역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전주의 경제를 이끌었다. 대표적으로 삼미촌 내 폐 공가와 성매매업소를 인권·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삼미촌 문화재생사업과 서노송동 예술촌 프로젝트, 방치된 폐공장을 문화로 재생한 팔복예술공장, 서화동 예술마을을 중심으로 이뤄진 문화재생은 도시재생의 정석을 보여줬다.

관광지가 됐다. 또한 첫마중길과 충경로 차 없는 거리에서 한해 펼쳐진 문화장터와 벼룩시장, 버스킹 공연, 예술경연대회 등 축제들은 침체됐던 구도심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 특히 6지구는 좁고 낡은 전주역의 선상역사 신축이 확정됐으며, 역 주변 20만1,300㎡에 오는 2023년까지 국비 150억원 등 총 250억원을 투입해 첫마중길 권역 도시재생 뉴딜재생사업을 추진했다. 아울러 민선7기 첫 결재사업인 '천만그루 정

전주 주역인 어린이·청소년·청년 정책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며 탄탄한 전주의 미래를 준비했다. 대표적인 공동체 회복 사업으로 259개 분야 예산 13억5,000만원의 온누리공동체사업과 11개 아파트공동체사업, 그리고 원도심 마을계획 수립사업 등이 있다. 또한 유아와 아동, 청소년, 부모,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으로 행복한 아이에서 행복한 어른에 이르는 전인적인 창의 프로그램으로 미래 전주를 키우고 있다.

지역인재 채용 18%를 시작으로 총 580여명의 직원을 채용했다.

▲준비된 미래 먹거리로 미래 전주 회복력을 갖춰다
올해는 자립도시 전주의 미래 회복력까지 든든하게 탑재하며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 대한민국 탄소산업 1번지 전주는 탄소 관련 신기술 연구개발·상용화를 주도할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된 후 탄소산업 육성의 법적 근거인 탄소소재법 제정에 이어 올해부터는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시작됐다. 이미 전국의 탄소 관련 114개 업체가 의향을 밝힌 상태인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시작됐다. 이미 전국의 탄소 관련 114개 업체가 의향을 밝힌 상태인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시작됐다. 이미 전국의 탄소 관련 114개 업체가 의향을 밝힌 상태인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시작됐다.

를 굳혔다. 최근에는 전주시가 오랫동안 이어져온 지역 낙후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실상 광역시에 준하는 특레시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팔복예술공장



전라감영 복원



아호학교

특히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전이 개최된 팔복예술공장은 국내의 벤치마킹이 줄을 이으며 한옥마을 중심의 전주관광 지형을 덕진공원, 생태동물원 등 북부권까지 넓히는 디딤돌 역할을 했다. 이곳은 지난 3월 개관한 이후 현재까지 99개의 기관단체 2,827명이 찾았으며 1일평균 235명의 방문객이 찾아 현재까지의 누적 관람객은 4만1,993명으로 집계됐다.

원도시 전주' 프로젝트를 전개, 제1호 은행나무가 유치원 어린이 천명의 손으로 심으며 생태 회복력을 높였다. 또한 아시아문화심장 사업의 정수이자 관광도시 전주의 미래인 전라감영이 모습을 드러냈고, 조선시대 전주부성 기초부분 유구를 최초 확인 하는 등 역사 복원을 통해 전주의 정체성을 회복했다. 이외에도 시는 전주독립영화의집 건립을 추진 중이며, 덕진권역 뮤지엄벨리에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동학농민혁명과 후백제 역사문화벨트 조성, 전통한지 생산시설 구축 등 전주 구도심을 복원하는 노력도 지속했다. 문화재야행사업과 경기전 야간 콘텐츠 사업은 체류형 관광지 한옥마을 시대를 열어 한옥마을 하루 더 프로젝트의 성공을 보여줬고, 문화재 야행은 문화재청 집계 84,749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며 2018문화재 활용사업 전국 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전주민의 아동·청소년 정책·사업 등 '야호'를 아동친화도시 대표 브랜드로 선정하고 생태놀이터와 아이숲, 도서관, 학교 등 야호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야호 놀이터 16개소를 조성하고 생태 놀이터 2개소와 학교 놀이터 6개소를 개설했으며, 오는 2020년까지 11개 시립도서관에 조성을 목표로 '행복한 책 놀이터 사업'도 활발히 전개 중이다. 청소년을 위한 '야호학교'는 해를 거듭할수록 이해와 인지도가 향상되어 학생생활기록부 활동 인정을 위해 공동사업으로 제안되는 등 창의적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전국 롤 모델이 됐다. 이외에 청년을 위한 사업인 '청년쉼표 프로젝트'를 추진, 청년들에게 희망을 줬다. 또 전국 최초 청년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전주한옥마을 인근에 성공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공동창업·창작공간인 청년상상놀이터를 조성했으며, 도시 곳곳에 청년소통공간인 '비밀'을 만들어 청년들의 교류와 협력, 소통을 위한 회의, 스타터 공간으로 제공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전주시가 추진하여 법제화된 혁신도시 공공기관

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시작됐다. 이미 전국의 탄소 관련 114개 업체가 의향을 밝힌 상태인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시작됐다. 이미 전국의 탄소 관련 114개 업체가 의향을 밝힌 상태인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시작됐다.



드론축구대회



각리단길

노후화된 건축물이 즐비했던 '각사길'은 건물의 멋을 살린 식당과 카페들로 채워져 '각리단길'로 불리며 시민과 관광객이 북적이며 이색

▲사람중심 정책, 미래 전주 탄탄
사람중심 전주형 지역 공동체 사업과 미래



특레시 지정 준비

시는 그동안 특레시 지정을 위해 최근 국회에서 열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레시 지정기준 제안 포럼'을 후원하고 참여하는 등 그간 정치권과 꾸준히 교류해왔다. 그 결과, 지난 3일에는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가 특레시 지정 기준에 포함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제 국가의 시대가 가고 도시의 시대, 시민의 시대가 오고 있다"면서 "사람·생태·문화·일지리의 시장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도시의 회복력을 높여 미래세대 위해 더 큰 가능성을 열어주고,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록

'천만그루'로 회복력 증대

지난달 유치원 어린이들과
종합경기장 1호 시민나무 심어
민선7기 출범 후 현재까지
심은 나무만 총 30여만 그루

전주시가 도시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민선7기 핵심사업으로 본격적인 나무 심기에 착수했다. '천만그루 정원도시 프로젝트'라고 명명된 이 사업은 공원과 호수, 인도와 공터, 학교, 건물의 옥상과 벽면, 산업단지 유휴 공간 등 단 한그루의 나무라도 심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오는 2026까지 공공분야 600만 그루와 민간분야 400만 그루 등 총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주도의 계획과 식재에서 벗어나 주민참여가 핵심인 천만그루 정원도시 프로젝트는 지난 11월 유치원 어린이들과 전주종합경기장에 1호 시민나무를 심는 것으로 본격적인 첫발을 뗐다. 이후 현재까지 시민헌수운동에는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1010만원의

성금과 3,142그루의 나무가 모금됐으며 주민들과 시설 이용자 등이 나무를 심어 가꾸는 어울림정원도 6곳에 조성됐다. 민선7기가 출범한 7월 이후 현재까지 식재된 나무만 총 30여만 그루에 달한다. 시는 향후에도 곳곳에 나무를 심고 도시 전체를 거대한 녹지축으로 연결해 온난화와 열섬현상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시민들이 숨 쉬기 편한 맑은 공기 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또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천만그루 정원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써 생물의 다양성을 복원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회복력 있는 도시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나무가 심어진 녹지가 열기를 낮추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를 줄이는 공기청정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 국립산림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1ha의 도시 숲은 연간 188kg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황사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 봄 도시 숲의 미세먼지 농도는 일반 도심보다 25.6%p, 초미세먼지 농도는 40.9%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김승수 시장

"미래세대에 더 큰 가능성을 열어주는 전주"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2014년 민선6기 전주시장으로 취임한 이래로 전주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고, 시민들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왔다. 김 시장은 "지금 전주의 가장 큰 고민은 전주시는 지속가능할까와 '전주시민들은 행복할까'라는 두 가지 물음"이라며 "시민들과 함께 어떻게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고민해 수립한 지역에너지계획,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를 둘러싸인 도시 곳곳에 천만그루의 나무를 함께 심는 일, 생물의 다양성을 복원하는 일, 자동차에게 빼앗긴 도로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고 공유경제를 키워 자립도시를 만드는 일은 도시의 회복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천만그루 정원도시를 조성하는 것도 단순히 꽃을 많이



피우고 숲을 아름답게 해서 보기 좋은 도시만 들려주고 싶은 것이 아니고, 생물의 다양성을 복원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회복력 있는 도시로 가기 위한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각 분야별 전문가 그룹과 시민, 시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도시의 회복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시장은 "이제 국가의 시대가 가고 도시의 시대, 시민의 시대가 오고 있다"면서 "사람·생태·문화·일지리의 시장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도시의 회복력을 높여 미래세대를 위해 더 큰 가능성을 열어주고,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기자